



조선 유학의 큰 별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이 걸던 길이 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순창 쌍치 '선비의 길' 완공 눈 앞

군, 공정률 70% 넘어서... 기존 걷는 길과의 차별화 위해 벽사·문화 담길로

조선 유학의 큰 별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이 걸던 길이 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순창군은 쌍치면 둔전리부터 북촌면 하리까지 약 5km 구간에 조성중인 '선비의 길' 조성사업이 공정률 70%를 넘어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비의 길은 훈몽재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자되며 선비의 길 조성, 훈몽재 대화암 주변 쉼터, 포토존, 수변 전망대, 안내관 설치 등이 이뤄진다.

군은 선비의 길을 그동안 자연경관에 중점을 둔 걷는 길과는 차별화를 위해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전통예절과 유학을 공부하

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훈몽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선비의 기개를 느끼고 사색하며 걷는 색다른 걷기 길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대학암 등 유학의 숨결이 담긴 장소를 걸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우선 가인연수원에서 김병로 생가를 거쳐 석보마을 앞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방길은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석보유원지 진입구간은 황토포장을 진행해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석보유원지에서 훈몽재를 잇는 1km 구간은 자연친화적인 데크길을 연결하여 숲과 강을 보며 최대한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연결했다. 또 전망대를 설치하여 쉬며 생각하는 공

간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주변에 송시열 선생의 친필과 영광정, 낙덕정 등 유학과 관련된 관광지원이 산재돼 있어 선비의 길 이 완공되면 조선 유학과 관광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 탐방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장산 훈몽재 가인연수관 추령정승촌, 산립박물관을 연계하는 서부 관광 코스를 한층 강화시키고 전라북도 토틀관광의 한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비의 길 조성사업은 그동안 유학 강연에 치중했던 훈몽재를 관광자원화하여 자연과 함께 선비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는 사업이다"면서 "조선 유학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 탐방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황숙주 군수, 가정의 달 휴일 잇은 현장방문 '눈길'

황금연휴 기간에 어린이날 행사장·노인요양원 등 방문 현장 소통 이어가

황숙주 순창군수가 가정의 달을 맞아 휴일을 반납하고 어린이날 행사 현장과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요양원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주민 밀착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황군수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육천요양원, 일품공원 어린이날 행사장, 육천미술관 행사장, 경천카누 체험장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먼저 황군수는 지난 7일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 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을 달아주며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춘향가 중 '쑥대머리' 판소리 한 대목을 불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황군수는 올해 103세 되신 임양옥 할머니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덕담을 건넸고 임 할머니는 "보고 잡았소 내가 내년에는 104살이 되요"하면서 웃음을 지으셨다. 황군수는 지난 6일에도 육천요양원 어린이날 행사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정을 나누며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황군수는 5일 순창군 어린이날 행사

가 열린 일품공원 행사장을 아침 일찍부터 방문해 안전 상황과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는 2천여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방문해 38가지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기쁨을 만끽했다. 황군수는 "순창의 아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면서 "어린이날 행사 이외에도 장난감 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순창을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지연금으로 노후설계를 안전하게

남원 농어촌공 춘향제 행사기간 농지은행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제8회 춘향제 행사기간(5.3~5.7)을 이용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농업인 및 남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지연금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경제상황에 맞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또한, 공시지가 6억까지 농지의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 고객과 개별 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200여명의 고객이 농지은행사업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사업 안내를 위해 홍보 안내문 1,000여매를 배부하였다. 남원지사는 상담결과 불만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생활불량 정비 추진

순창군은 역사적·생태적·마을정서적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수계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고사될 상태가 있는 정비가 시급한 63본에 대해 정비를 실시한다. 5월 22일까지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동공이 발생해 부패가 진행되고 가지가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부패부위 제거와 살균 방부 처리 등 응급수술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 정비 및 토양개량을 통해 생육증진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시, 불법무기 단속기간 운영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5월 한달간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순창지역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경북 경산에서 총기이용 농림 강도사건 발생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대대령선거 전·후 및 U-20 월드컵, 무주 태권도 대회 개최 시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 및 소지 인터넷상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환경부·방출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보안과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연은 물론 생활질서계 내 집중단속팀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 교통관리 만전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최근 춘향제 행사장인 춘향교3가부터 노안동4가까지 교통통제 및 행사장 주변에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선진화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주요 교차로 및 차량통제 구역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원활한 소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참여형 길놀이는 하늘중에서 시작해 시내 중심도로를 통과해 십수정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차량들의 부분통제를 하며 지나가기위해 싸이카2대와 교통 순찰차를 선구로 배치하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힘썼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홍보

순창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자와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적극 홍보를 나가고 있다.

국세인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월중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으로는 지난 한해 동안 얻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위탁,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가상계좌, 카드결제, ATM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과 세표준 1,200만원 이하(최저)는 0.6%에서 5억원 초과(최고)는 1,70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 등 6단계 세율 중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추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한편, 순창군은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신고납부를 하는데 적극적으 도와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 산단 인근에 해바라기 3천본 식재

완주군이 산업단지 인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악취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정화효과를 가져다주는 해바라기 3000본을 식재,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소장 김영수)는 지난달 말부터 공단 정수장 입구 및 주변공간 2000㎡에 해바라기 3000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는 오염물질 정화효과 매우 탁월한 정도로 자연친화적이면서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

정화공법(Pyto remediation)의 대표 식물로 꼽힌다. 특히 학계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오염물질을 빨아들인 뒤 정화시켜 공기 중으로 내뿜으로써, 10그루가 1t 가량의 납과 수은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번 해바라기 식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및 근무여건 조성과 악취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